

태양광 컨퍼런스 7월15-16일 개최

2010 한국 태양광 컨퍼런스가 7월 15-16일 2일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다.

태양광 발전 및 신·재생 에너지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솔라앤에너지 주최로 국내외 18개 관련기업 및 연구소, 정부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태양광산업을 전망할 예정이다.

컨퍼런스는 크게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. 첫째 날에는 독일투자청, 캘리포니아 태양광산업협회, 전기연구원, 솔라앤에너지, 트리나솔라 등이 현재의 부문별 시장상황 분석 및 사업전략을 공유하며, 둘째 날에는 LG디스플레이, 텔리오솔라, 코나카, 신성홀딩스, Asahi Glass 등이 태양전지 및 소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및 기업별 전략을 공유하게 된다.

태양광산업은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6% 이상 성장했으며 2010년에는 약 70%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. 각국 정부가 태양광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.

태양광 컨퍼런스는 글로벌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태양광산업을 선택해 대대적인 규모로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별 전략 및 국가정책의 흐름, 시장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0/06/22>